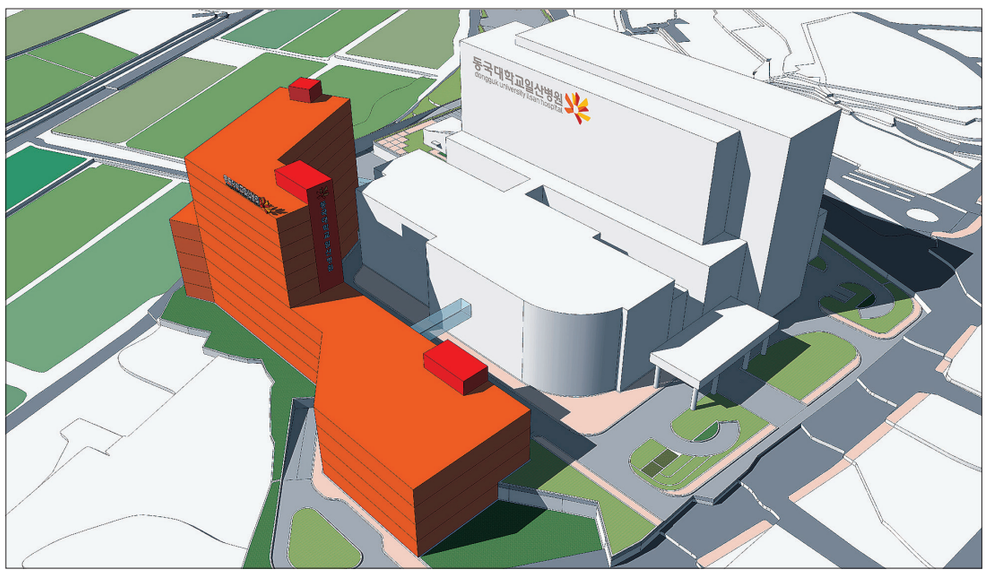
동국대 일산병원 증축… 재도약 나선다

2월 6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의료 인프라 확대 주장한
이사장 법산 스님 의지로
250병상 규모 건물 증축

2030년까지 3천병상 확대
전국적 병원네트워크 구성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증축 조감도.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로 증축되는 건물. 이곳에는 250병상이 새로 들어선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250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추가로 증축한다. 이를 통해 경기 서북부 대표 종합병원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2월 6일 BMC약학관 2층 회의실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 증축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불교 의료 인프라의 양적 · 질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해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현재 672병상 건물과 별도로 250병상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기존 병원에 100병상을 추가로 늘려 1000병상 이상의 일산 최대 규모이자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의 위상을 갖출 계획이다. 완공은 2023년 예정이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1,000병상으로 확대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급성기 · 회복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고, 승가의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 한방 협진의 활성화와 동국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 공간 확충과 함께 이뤄져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증축은 불교의료 인프라 확대를 강조해 온 이사장 법산 스님의 강한 의지로 추진됐다. 지난 1월 31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26차 이사회에서도 일산불교병원 신축 계획을 승인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보탰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개신교나 천주교의 경우 수십 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불교계 종합병원은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일산과 경주의 동국대병원 단 두 곳뿐인 것이 늘 안타까웠다"며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불교의 자존심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사부대중이 모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일산 · 분당 · 경주 한방병원 등 모두 1,2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동국대 의료원은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증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00병상 급 규모로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병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이사장 법산 스님의 원력이 동국대 의료원 발전의 새로운 도약이자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며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동국대 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년 6월 진료를 시작해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고 있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현재 고양시 내 종합병원 중 두 번째 규모이며,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서 신뢰받는 종합병원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25돌 조계종복지재단, 전문가 양성 박차

중장기발전위원회 조직… 미래 비전 수립 돌입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산하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5~6회 진행하던 실무교육을 대폭 확대, 불교 전반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월 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올해 종무기조를 '일파만파(一波萬波)',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겠다고 정했다.

이를 위해 불교사회복지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한 교육사업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재단에 따르면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까지 재단 산하시설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몇 차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무 · 회계 등 분야별 교육을 마련했다. 아울러 연수로 사회복지 현장종사자와 중간관리자, 실무책임자, 최고관리자, 보육시설종사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총 교육 대상은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재단은 내다보고 있다. 예년 대비 4배에 달하는 숫자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본 정신을 되새기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며 "연간 20여개의 강의를 개설, 재단 산하시설뿐만 아니라 불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은 불교의 대사회 활동 확대를 위해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직 실무차원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중앙승가대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법인 사무국 내에 중장기발전위원회(가칭)을 조직, 정책조정 · 대외협력 · 재정후원 개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하시설 종사자 중 정책적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들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정책 검토 및 자문 등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비전은 12월 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발표된다.

보인 스님은 "올해 재단 창립 25주년인 만큼 앞으로의 비전을 내부 구성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시하고자 한다"며 "불교사회복지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고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경영을 하지는 않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표이사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무원장과 재단 대표이사 겸직을 분리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표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함께 둔 대기업 사례를 취합해 검토 중이며, 이와 별개로 조계종 종법 제개정을 통한 대표자 변경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교구본사별 불교복지 확산을 위해 재단 차원의 법인 설립 및 교구 이양은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남지역 교구들이 연합해 복지법인 설립 실무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 北영통사 봉축법요식 추진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기념사업 취지로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는 2월 6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문화교류사업을 비롯해 다문화NGO사업 등 올해 사업을 공개했다.

이날 나누며하나되기 정책과장 문법 스님(천태종 사회과장)은 "올해는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의 해이지만 2015년 마지막 법회 후 다례재를 비롯해 법회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조불련 측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 다례재 봉행과 부처님오신날 합동 봉축법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천태종은 남북교류 중단에도 그동안 중국 심양에서 조불련 측과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제3국에서의 회동이 추진된다.

스님은 "정부의 대북방침과 북한 측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영통사 복원 15주년을 계기로 불심이라는 한마음으로 모였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영통사 보수 등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남북불교교류뿐만 아니라 올해 다문화NGO사업으로 다문화불교연합회 불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상호협력, 하나원 수료생 자비나눔과 불교체험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고려인 및 탈북청소년 DMZ 탐방 등 평화번영 통일기반 조성사업 등이 진행된다. 국내 저소득층 지원 등에도 사업을 확장한다. 2월 9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취약계층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자비나눔을 시작으로 서울시, 사랑의열매, 마사회 등이 사회공헌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신년하례, 군불교 진흥 다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국군불교총신도회는 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활발한 군포교 등 군불교 발전을 위한 원력을 모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스님을 비롯해 국군불교총신도회 고문 최현국 공군 중장, 박정이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 최차규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고문(전 공군참모총장), 이경구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전현직 장성들이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종회의원 보궐, 진화 · 가섭 스님 입후보

2월 24일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서 최종 확정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前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과 前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입후보했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2월 5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마감 결과 직능대표 행정분야에 진화 스님이, 직능대표 포교분야에 가섭 스님이 후보 등록했다. 송광사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둔 진화 스님은 보궐선거 입후보를 위해 최근 주지직을 사직했다.

공석이 된 직능대표 각 분야에 후보가 1명씩 등록하면서 2월 12일 열리는 자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두 스님 모두 사실상 중앙종회의원 당선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는 2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종립 중앙승가강원 학인 모집 안내

종단의 중진 교역자 및 인재양성, 미래교육 불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종도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 과	모집인원	교학과목	교학기간	수강시간	전형방법
대교과	00명	화엄경	1년(2학기)	매주(월, 화)	서류심사
사교과	00명	① 금강경 ② 대승기신론 ③ 능엄경 ④ 원각경	1년(2학기)	매주(수, 목)	

2. 전형 및 개강 일정

구 분	일 자	구비서류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0. 1. 10(금) ~ 2020. 2. 10(월)	입학원서(교육원 소정양식) ※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 입학원서 : 종단홈페이지(다운로드) (http://www.taegojong.or.kr) ※ 학력증명서 제출	사진 2매 (3×4cm)
합격자 발표	2020. 2. 19(수)	개별통보	
대교과 개강 및 입학식		2020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매주 월,화요일
사교과 개강 및 입학식		2020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매주 수,목요일

3.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대교과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사교과정 이상 수료자 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③ 동방불교대학 졸업자로서 대덕법계 이상 수지자 ④ 정규불교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수료자
사교과	① 중앙승가강원, 선암사전통강원 사집과정 이상 수료자 ② 선암사 전통강원에 준하는 승가대학 및 전통강원 사집과 이상 수료자 ③ 본종 입적 승려로서 동방불교대학 졸업자 ④ 정규불교대학교 학사학위 이상 수료자

4. 특전사항 : 1)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2) 본 종단의 스님이며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 대교(2년)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및 상위 대덕법계까지 시험 자격 부여.
3) 타종단 승려도 입학가능.

5. 등 록 금 : 100만원(1학기) ※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 ~ 4**

중앙승가강원장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